

## 관광관련학과 교수의 연구생산성과 그 결정요인:\*

우리나라 관광학의 학문적 정체성 확립방안에 대한 시사

Research Productivity of Academic Professionals and its Determinants: Toward the Identification of Tourism Academics in Korea

金 思 憲 \*\*

Kim, Sa-Hun

### ABSTRACT

*This paper probes into the research productivity of Korean academic professionals and its determinants. Considered factors as explanatory variables are age, years served, status, final degrees and locality of the involved professors in 4-year universities in Korea. Research productivity that constitutes dependent variables in this study was measured by the written numbers of periodic journals, proceedings and related books. Saddle-typed productivity relationship between productivity and age(or years served) was not proved, but asymptotically upward increasing relationship was identified. However, those group who took Ph.D degree overseas were found showing saddle-typed productivity. As far as status was concerned, assistant professors were observed most productive, while full professors were shown the least productive.*

핵심용어 : 관광교육, 대학교수, 연구생산성, 재직연수, 최종학위

\* 이 논문은 한국학술진흥재단 2001년도 선도연구자 지원사업 (과제번호 C00428)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밝혀둔다.

\*\* 경기대학교 대학원 관광개발학과 주임교수 겸 (社) 한국관광학회 상임교문.

E-mail: sahu@kyonggi.ac.kr, sahu@joins.com

## I. 서론

국내외를 통틀어 관광학 교육의 역사는 줄잡아 40여 년을 헤아린다. 우리나라도 1964년 4년제 대학에 최초로 관광학과가 개설된 이래 학생 수나 학과의 수, 교수진의 수적인 면에서 큰 성장을 이룩하였다. 특히 90년대에 들어서는 4년제 및 2년제 대학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해 2000년 현재에 이르러서는 학과수가 전문대학 184개 학과(52개 전공), 4년제 대학 87개 학과가 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국내외를 막론하고 관광학은 여러 가지 요인때문에 긴 교육 역사에 걸맞을 만큼 학문적 진전을 이루지는 못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이다(김민주, 2000; 조명환, 2001: 17-23; 김사현, 2002: 103-114; Ritchie and Goeldner, 1994: XIII-XVI). 관광학을 사회과학 분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자연과학 분야 혹은 양자의 종합으로 보아야 할지 그리고 관광을 과연 분과과학(a discipline)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어학이나 기능을 연마하는 技術 정도에 불과한 것인지 관광학 자체에 대한 正體性(identity) 논의가 최근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와 무관하지 않다(Tribe, 1997, 2000; Leiper, 2000). 외국의 관광관련학자들간에도 관광학의 수준을 일컬어 “frivolous”, “side-line”, “peripheral”, “incipient”, “pre-paradigmatic”, “indiscipline” 이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바로 같은 맥락에서라고 판단된다.

관광학이라는 학문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방안으로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개념의 틀을 구성하고 방법론을 정립하는 등 기초연구와 더불어 관광학 이론체계의 저변을 넓히고 지식을 심화시키는 것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오로지 고등 교육자이며 연구자인 교수의 몫이다. 학자들이 주장하듯이(정진환, 2001), 교수는 대학의 가장 생산적인 요소이며, 대학이라는 조직을 여타의 다른 조직과 구별짓는 원천이며, 지식기반사회에 있어서 교수의 역할은 곧 그 국가 사회의 국제경쟁력을 판가름하는 기본 척도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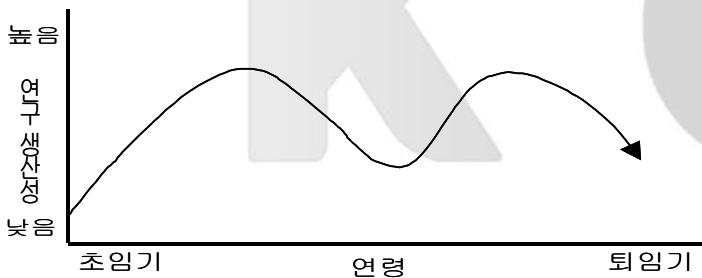
그렇다면, 대학의 주된 생산요소이며 학문생산의 주체인 대학교수는 누구인가? 범위를 더 좁혀서, 관광학지식의 생산주체인 관광분야 대학교수는 누구이며 어떤 특성을 지닌 집단인가? 그 인적 배경은 무엇이고, 어떤 배경을 가진 교수가 얼마나 더 연구생산성을 올려 정체성 혼동 속에 있는 관광학계에 이바지하고 있는가? 바로 이 문제가 본 연구의 출발점이며 제기하는 연구문제이다.

교수의 연구생산성을 규정짓는 요인에 대해서는 관련학자들에 의해 자주 논의

되고 있다. 비록 우리나라 대학이야말로 “각종 비리의 온상”이며(장정현, 1996: 211-254; 안재욱, 1997: 46), “한번 교수는 영원한 교수”(오세정, 2001)라는 식의 비아냥거림이 있을 정도로 교수사회의 신뢰성이 실추되고는 있지만, 어느 집단에서나 다소의 예외나 부작용은 있기 마련이다. 일본의 有本章・江原武(2000: 190-201)은 국제 사례조사를 통해 교수의 연구생산성이 높은 나라는 그렇지 않은 나라에 비해, 연령대별로 50대 교수가 더 많고, 대학원교육 담당 교수의 비율이 더 높으며, 교수 평균 연구시간 수가 더 많음을 발견하였다. 또 교수 평가에 있어 연구를 주요 잣대로 사용하는 곳, 국제 세미나 등 국제 교류가 많은 곳, 상근직 교수가 많은 곳, 그리고 교수 연간 총수입과 연구비 수혜교수 비율이 높은 곳이 타국에 비해 연구생산성이 높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한편 대학원교육 담당 교수의 비율과 관련하여, 송혁순(2001)은 사례조사를 통해 박사과정인력 유무가 대학교수의 연구생산성을 보다 더 높혀 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즉, 박사과정 1명 증가당 교수의 논문은 2편, 저서는 0.6권 증가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성호(1992: 120-127)는 소속 대학·학과의 지적 분위기, 지도교수의 성향, 연구동기(내적 또는 외적 동기), 직급, 연령, 전공 분야 등이 우리나라 교수 연구생산성의 주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연구의 내적 동기는 개인의 순수한 학술적 흥미, 연구지향적 성격을 뜻하고 외적 동기는 승진, 재임용 등의 동기를 뜻하는데, 그는 외적 동기보다 내적 동기가 더 생산지향적이라고 설명한다. 또 자연과학 전공자가 사회과학 전공자보다, 그리고 사회과학 전공자가 인문과학·예술계 전공자 보다 일반적으로 생산성이 높고, 직급이 높을수록 즉, 교수로서의 경력이 많을수록 누적된 연구업적이 많으며 출판율도 높아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림 1) 교수의 연령 증가에 따른 연구생산성 변화



자료: 이성호(1992) p. 126의 그림 5-1 참조(原典: Bayer and Dutton, 1977).

특히 이성호(1992: 126)도 인용하였듯이, Bayer와 Dutton(1977: 259-282)은 [그림 1]과 같이 연령에 따른 연구생산성은 “말 鞍裝型”(a horse saddle type)을 이룬다고 주장한다. 즉, 초임 후 초기 10년간은 연구생산성이 높아지기 시작하고 정점에 이르렀다가 감소되기 시작하며, 다시 정년 퇴임기가 가까워 오면서 또 한번 상승곡선을 그려 정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이들이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그 외에도 학부의 전공이나 현재 거주지역, 학위취득 여부, 특히 교육여건과 관련하여 최종학위가 어떤 연구환경(지식접촉 빈도, 대학원 교육에의 참여 등)에서 최종학위를 취득했는가도 연구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본 연구자가 제기하는 주장이다. 특히 거주지역(여기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지적 정보 획득이나 접촉빈도의 차이를 나타내주므로 정보의 획득이나 접촉 빈도가 더 높다고 사료되는 수도권 소재 대학교수들이 비수도권 보다 연구생산성이 높을 것이라는 점이다. 또 본 연구자의 생각으로는 국내에서 학위를 취득한 교수집단이나 해외에서 학위를 취득한 집단간에 연구생산성에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이유는 외국의 관광계 대학의 역사가 국내대학보다 오히려 짧은 경우가 많아 이론이나 연구방법면에서 국내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외국어(대부분 영어)를 매체로 하여 관광교육을 받았으므로 해외 영문학술지와의 접근이 용이할 것이므로 해외 학술지에 대한 투고 생산성은 국내 학위 교수집단보다 더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 자료의 성격과 범위

본 연구는 표본조사가 아니라 관광학계 교수 전체 모집단을 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관광분야 교수 모집단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모집단의 성격이나 범위를 劃定해야 한다. 왜냐하면 관광이라는 학문의 범위 자체가 모호하여 어디까지를 관광학으로 보아야 할지가 문제이기 때문이며, '대학'이라는 조직에 대한 성격이나 범위규정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조사 대상 집단의 성격을 규정하고자 한다.

첫째, 관광학이라는 학문분야의 범위이다. 종합학문이라는 이유때문이기 는 하지만 관광학 분야는 경제학, 사회학, 지리학 등 기존의 정립된 단일 사회과학에 비해

학과 혹은 학부의 명칭이 지나칠 정도로 다양화되어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 조사해본 우리나라 4년제 대학교의 학과 혹은 학부의 명칭을 보면, 관광경영학과, 관광개발학과, 관광레저개발학과, 관광학과, 호텔경영학과, 호텔관광경영학과, 호텔레저경영학과, 호텔외식경영학과, 국제관광학과, 관광문화학과, 문화관광학과, 관광통역학과, 관광영어(일어, 중국어)통역학과, 외식사업학과, 외식조리학과, 조리외식학과, 호텔외식경영학과, 호텔조리식당경영학과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고, 전공학부별로도 관광대학, 관광학부, 경영관광정보학부, 관광통상정보학부, 호텔관광학부, 호텔외식학부, 호텔관광경영학부, 관광호텔외식경영학부, 국제관광통상학부 라는 명칭을 가진 조직내에 관광관련 전공들이 뒤섞여 개설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범위와 명칭이 다양하므로 먼저 어디까지를 관광분야의 학문 범위로 볼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관광학이 포괄하는 학문적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연구된 바가 없어 다소 자의적인 기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sup>1)</sup>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부득이 관광 관련학부(또는 단과대학)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어학(통역) 관련 전공이나 학과만을 제외한 여러 전공(또는 학과), 즉, 관광, 여가, 호텔, 호스피탈리티, 외식조리, 이벤트(국제회의 등) 분야를 '관광학' 분야로 간주하기로 가정한다. 문제는 이상의 학과나 학부에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관광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강의를 하거나 연구물을 생산하는, 소수이긴 하지만 예외적 집단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인데,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파악하기가 어려워 분석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둘째는 '大學'이라는 조직의 범위이다. 주지하듯이 우리나라에서 관광학을 교육하는 대학기관은 2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 두 종류가 있고 4년제 대학도 개방대학, 4년제 학력인정 각종학교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 중에서 필자는 관광교육을 실시하는 4년제 대학 모두를 대상으로 삼았다. 그 이유는 본 연구의 핵심 주제가 교수의 '연구생산성'에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 대부분의 전문대학이 연구보다는 교육·취업에 소속 교수의 역할을 두는 쪽으로 편향되어 있어 연구시간이나 동기부여가 상대적으로 적은 전문대학 교수집단의 연구생산성을 4년제 대학 교수집단의 그것과 동등한 잣대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專任教授(보수 전액을 받는 정규 임용교수)이외의 외래교수, 초빙교수, 대우교수, 강의교수(외국인 포함), 시간강사 등 비정규직 성격의 교강사진은 모두 제외시켰다. 주지하듯이, 각 대학들이 인건비 절약을 주된 목적으로 교수제도를 편법

1) 필자가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관광학의 범위가 있으나 이것도 자의적이라는 평가를 면할 수 없을 듯 하다. 참고(2002) pp.85-86 참조.

운용하는 사례가 비밀비재하고(장정현, 1996: 175), 임용대학 당국이 이들에게 현실적으로 강의와 취업알선만을 요구할뿐 '연구실적물 생산'은 크게 요구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이다. 더우기 이들은 한국학술진흥재단 학술연구자정보란이나 대학내 홈페이지에 대부분 등재되어 있지도 않아 이들의 연구활동 내지 기타 인적정보를 획득하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상의 세 가지 전제하에 교수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우리나라 관광관련학회의 회원 인명록과 韓國學術振興財團 홈페이지(www.krf.or.kr)의 '學術研究者情報'란을 이용하여 구득하였다. 관련학회 회원 인명록은 비교적 역사가 오랜 사단법인 韓國觀光學會의 「한국관광학회 회원명부」, 大韓觀光經營學會 및 韓國觀光레저學會 학회지 말미에 첨부된 회원주소록, 그리고 각 관광관련 대학교의 학과(학부, 대학 포함) 홈페이지를 이용하였다. 이렇게 범위를 확정하여 조사해 본 4년제 대학교수 연구자수(모집단)는 총 275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 2. 변수의 선정과 조작

연구자의 신상에 대한 주된 정보원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학술연구자 정보란'이다. 그러므로 연구의 범위나 내용은 부득이 이 정보가 주는 범위에 의해 제약될 수 밖에 없다. 교수모집단 275명에 대한 학술 및 개인신상 정보는 학술진흥재단 홈페이지와 개인 홈페이지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추출하고 필요에 따라 이들을 분석가능하게 변수조작을 행하였다.

### 1) 연구 생산성

교수집단의 研究生産性은 본 연구의 유일한 종속변수이다. 연구생산성과 관련하여, 교수집단에 의해 생산되는 다양한 종류의 연구실적물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는 무척 신중을 기해야 하는 과제이며 한편 논란의 소지가 큰 문제이기도 하다. 교수의 연구생산물은 일반적으로 전공영역의 저서(교과서, 학술연구서, 번역서, 편저서 등)와, 논문(공인된 출판사를 통한 논문, 비평 등) 그리고 연구보고서, 학술회의 발표논문, 특허, 전시 및 발표회(작품, 토론, 세미나, 강연회 등), 학술상 수상 실적 등을 말한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교수들의 전공분야는 주로 사회과학에 속하므로 평가의 대상은 특허나 전시회, 발표회가 아닌 연구 생산물, 이를테면, 전공영역의 저서(역서, 편저서 포함)나 논문, 보고서 등에 국한하는 것이 대학 연구업적 평가의 관례이다. 본 연구에서는 모호하여 평가하기가 어렵고 객관성을 증빙하

기가 어려운 각종 연구용역보고서, 강연회 자료 등을 제외한 공식출판된 연구논문(정기학술지 논문, 대학논문집, 연구소 논문 등), 학술 저서·역서·편저서, 학술회의 발표논문(proceedings)만을 연구생산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렇게 범위를 정하더라도 문제는 이들 실적물들을 어떻게 가중치를 주어 평가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이 분야학자들에 의하면, <표 1>에서 보듯이 논문과 저서의 가중치를, 논문을 1로 볼 때 이론연구서를 3배 내지 7배, 편저서를 1배-2.5배, 그리고 교과서를 1.5배-3배 높게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이성호, 1995: 185). 그러나 여기서 무엇을 '이론연구서', "교과서' 혹은 '편저서'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엄격한 익명심사를 거친 논문과 그렇지 못한 논문(예: 校內論文集 등)을 과연 同級으로 간주할 수 있는가? 가중치를 부여하는데 있어 주관성이 개입될 소지가 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면 가중치 평가는 오히려 문제의 해결은 커녕 문제를 더 생산하는 결과만 낳을지도 모른다.

<표 1> 연구업적 평가에서 저서와 학술지간의 비중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

연구자(연구년도)	편저서	교과서	이론연구서	학술지논문
Glenn & Villedomez(1970)	10	15	30	4-10
Knudsen & Vaughan(1969)	2	3	6	1-2
Cartter(1966)	2	3	6	1

주: 이성호(1995). p. 185의 <표5-10>을 인용하여 재편집.

유감스럽게도 교육 선진국들에 비해 우리나라 학계에는 아직 학술지의 평가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어 있지 않으며 이제 겨우 걸음마 단계에 들어서 있다.<sup>2)</sup> 따라서 우리 학계에서 각종 국내외 논문이나 학술발표회 논문집, 저서·역서 등을 어떻게 가중평가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또 하나의 큰 연구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급적 이 문제를 우회하여 접근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저서와 논문은 기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므로 분리해서 평가해보는 방법 등이 그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학술진흥재단 登載學術誌(또는 등재후보학술지)는 그 지적인 수준이 이미 객관적으로 인정되었으므로 A급으로 인정하며(외국의 정기학술지는 대부분 익명심사가 정착되어 있다고 보아 A급으로 환산) 기타 학술지는 B級

2) 비록 1998년 말부터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야심적인 '등재학술지' 평가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지만, 아직 많은 학술지들에 대한 평가가 진행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대학 또는 기관들의 이해와 협조 부족으로 이 평가기준이 한국 대학사회에 완전 정착되어 있지는 않았다.

으로 간주하였다. 다만, 최근 논문집 引用指數(impact factor) 연구 결과(김사현, 1999: 189-211)를 바탕으로 대한관광경영학회, 한국관광레저학회, 한국호텔경영학회가 발행하는 학회지를 차상급 학회지로 인정하고 加點을 주는 대안을 취하였다. 기타 논문들은 모두 동일한 급의 논문으로 간주하되, 다만 학위논문(임용시의 당연한 요건이므로 제외), 신문이나 대중잡지에 발표된 에세이(essay) 성격의 논문, 발표기관이 명시되지 않았거나 발표기관이 학술관련기관이 아닌 유사논문은 모두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아울러 저서·역서 중 전공과 관련이 없는 서적(시집, 수필집, 소설, 일반교양도서 등), 동일한 저서의 개정중판, 각종 자격시험 대비용 문제집, 외국어 회화용 또는 讀本 등은 연구실적물에서 제외하였다.

평가대상 생산물의 생산시점과 관련하여, 모든 연구실적은 4년제 대학 임용시부터 2002년 6월말 현재까지 생산된 업적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아울러 만약 2년제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4년제 대학으로 전직하였을 시, 4년제 대학에 전직한 날부터 생산되기 시작한 연구업적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다만, 논문이든 저서·역서이든 공저자(공역자)와 단일 저서·역서 모두 동일 가중치를 주었다는 점이 본 연구의 최대 한계점이다. 학술진흥재단 정보나 연구자 개인의 정보가 이를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어 개개인 실적물의 원본을 일일이 조사해보기 전에는 이를 밝혀낼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상의 연구생산성 변수를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 (1) 연구 논문: 한국관광학회지(관광학연구), 대한관광경영학회지(관광연구), 한국관광레저학회지(관광레저연구), 한국호텔경영학회지(호텔경영학연구), 기타 연구(각종 정기학술지, 연구소 논문집, 교내 논문집)
- (2) 학술발표 논문집: 국내외 학회(학술단체) 발표논문집, 연구소 발표논문집 등
- (3) 국제학술지: SSCI급을 포함, 익명심사제를 취하는 국제학술지(편집위원이 국제적으로 분포된 국제공용어 학술지)

## 2) 개인 속성관련 변수

개인 신상관련 변수는 본 연구의 종속변수(연구 생산성)를 규정짓는 설명변수이다. 여기서는 한국학술진흥재단 학술연구자 정보를 바탕으로 이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1) 나이: 학술연구자 정보란에 기재된 나이
- (2) 임용년도: 4년제 대학 관광관련학과에 최초로 부임한 년도
- (3) 재직기간: 4년제 대학 관광관련학과에 부임하여 재직한 년수(轉職 포함)

- (3) 직위: 4년제 대학 관광관련학과에서의 현재 직위(정규직 전임강사 이상)
- (4) 학부의 전공: 대학 재학시의 관광전공 여부
- (5) 박사학위 여부 및 국내외 수여대학교 구분: 박사학위 취득 유무 및 박사학위 수여국 구분
- (6) 학교소재 지역: 7대 광역도시 및 9개 道중 대학이 소재하는 지역

### Ⅲ. 연구 생산성의 결정요인: 개별 속성변수와의 제관계

이상의 자료 조사를 토대로 연구생산성과 개인속성변수에 대한 記述統計와 이들 변수간의 상관성 혹은 인과관계를 분석해 보았다. 이미 위에서 밝힌 바대로 모집단은 275명이었으며, 학술진흥재단 연구자정보란에서 스스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거나, 공개하였더라도 정보가 부실하거나(대부분 연구실적 미등록), 연구자 정보란에 등재하지 않았거나, 개인(대부분 소속대학) 홈페이지에 조차 올리지 않은 교수, 혹은 아예 홈페이지조차도 없는 無情報者는 변수의 종류에 따라서 적게는 16명에서 많게는 32명에 이른다. 따라서 이러한 研究限界集團(marginal research group)을 제외한 분석 가능한 유효 모집단은 적게는 243명, 많게는 265명에 이른다.<sup>3)</sup> 이들 변수들의 단순 기술통계는 다음 <표 3>과 같다.

#### 1. 개별속성 변수에 대한 기술적 통계

우선 연구대상 집단의 평균 나이는 46.9세(1955년생)이다(표3 참조). 이를 연령대별로 보면, 30대가 20.7%, 40대가 51%, 50대가 18.5%, 그리고 60대가 9.5%인 것으로 밝혀졌다. 재직연수로 보면, 10년 미만 재직자가 63.8%,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자가 27.6%로 전체 교수의 약 91%가 19년 이하였고, 평균은 8.5년인 것으로 나타났다(표2 및 3 참조). 이는 나이 40세 전후가 되어야 교수직을 얻게 되는 근래의 추세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듯하다. 특히 한국교수의 평균연령이 45.3세(사회과학 46.2세)라는 조사 결과(有本章·江原武, 2000: 31)에 비하면 약 0.7세가 높은

3) 그러나 분석이 가능한 이들 243명-265명이 유효 표본이라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표본이란 모집단의 대표적 특성을 그대로 지닌 집단을 말하는데, 이들 限界集團(marginal group)은 비공식적으로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유효집단과 달리 연구활동이 전혀 없거나 거의 연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이다.

데, 이는 적지 않은 학교가 업계경력이 있는(나이가 든) 현장종사 경험자를 선호하여 채용하는 경향에 기인하지 않은가 사료된다.

<표 3>을 보면 직급은 조교수 31.7%, 정교수 26.4% 순으로 많으며, 교수들의 약 71%가 學部 재학시절 관광계열을 전공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한편 본 연구의 관심사중 하나인 학위 취득사항을 보면, 박사학위 취득자가 91.7%, 비취득자(거의 석사학위 취득자로 판단됨)가 8.3%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구간대별 나이 및 재직연수

나이 혹은 재직연수	나이		재직 연수	
	명	%	명	%
1-9	-	-	148	63.8
10-19	-	-	64	27.6
20-29	-	-	18	7.7
30-39	48	20.7	2	0.9
40-49	119	51.3	-	-
50-59	43	18.5	-	-
60 이상	22	9.5	-	-
합	232	100.0	232	100.0

<표 3> 교수 개인신상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

변수 구분	총계 (N)	정보 불명	유효 수	평균 또는 %
<u>나이</u>	275	16	259	1955.9(46.9세)
<u>임용년(재직연수)</u>	275	32	243	1994.2( 8.5년)
<u>교수의 직급</u>	275	10	265	100.0
전임강사			58	21.9
조교수			84	31.7
부교수			53	20.0
정교수			70	26.4
<u>학부 때의 전공</u>	275	22	253	100.0
관광관련			180	71.1
비관광			73	28.9
<u>박사학위 여부</u>	275	23	252	100.0
박사학위자			151	59.9
국내 취득				
해외 취득			80	31.7
석사학위이하			21	8.3

박사학위 취득자 총 231명중 65.4%(151명)가 국내에서 학위를, 34.6%(80명)가 해외에서 학위를 취득하였다. 약 1/3이 해외 박사학위 취득자인 셈이다. 해외 취득자 80명의 학위취득 국가를 보면, 미국 57명(71.3%), 일본 11명(13.8%), 영국 3명 호주 2명, 기타국(중국, 필리핀, 스페인, 오스트리아) 각 1명의 순으로 전체 해외학위자의 71.3%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2002년 6월 현재,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신고된(www.krf.or.kr 참조) 23,998명의 박사학위 출신국 분포가 미국(57.4%), 일본(16.4%), 독일(8.3%), 프랑스(4.9%), 영국(3.4%)의 순인 것과 비교하면, 우리 관광학계는 박사학위 취득이 심히 미국편향적임이 드러나고 있다. 이는 관련 연구(송혁순, 2001)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 2. 연구 생산성의 기술통계와 분석

한편 본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교수집단의 연구생산성을 보면, 다음 <표 4>와 같다. 위의 연구방법에서도 설명하였듯이, 연구업적물은 국내논문을 관광관련 4대 학술지와 기타 학술지, 그리고 국제 학술지로 분류하였으며, 아울러 국내외 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그리고 저·역서(편저 포함)로 구분하였다.

먼저 이들 연구매체에 발표된 총 게재회수를 조사하고 이를 有效集團數(관련정보가 없는 자를 제외한, 정보가 파악된 교수만의 수)로 나누어 인당 평균생산성을 구하여 보았다. 분석 결과, 교수들은 재직기간 동안 人當 1.86권의 저서와 인당 8.77편의 논문(프로씨딩은 제외)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재직기간이 8.5년인 것을 감안하면 겨우 인당 년평균 1.03편의 논문을 썼다는 계산이다. 이 8.77편의 논문중 대부분인 6.38편(72.7%)을 거의 심사제 학술지가 아닌 기타 학술지(주로 교내 논문집)에 게재하였고, 그 외에 1.84편만을 국내 4대 학술지에, 그리고 0.55편을 국제 학술지에 게재하였다. 국내 4대 학술지에 게재한 1.84편중 0.93편은 한국관광학회지(관광학연구)에, 0.34편은 한국호텔경영학회지(호텔경영학연구)에, 0.31편은 대한관광경영학회지(관광연구)에 그리고 0.27편은 한국관광레저학회지(관광레저연구)에 게재하였다.

이 게재회수로 본 학회지 순위는 연전 筆者(1999: 189-211)가 조사한 학회지별 인용지수(impact factor) 순위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이 흥미롭다.<sup>4)</sup> 그러나 <표 4>의 맨 끝 縱欄에 나타나 있듯이 모든 標準偏差(즉, 개개 교수간 편차)가

4) 각 학회지 게재 논문 1편당 피인용 지수(impact factor) 년1994-1999년 기간, 관광학연구 0.713, 호텔경영학연구 0.542, 관광연구 0.432, 관광레저연구 0.217 편의 순이었다

<표 4> 연구매체별 재직기간동안 총게재회수 및 인당 평균 게재회수

연구물 종류	총 게재회수	재직동안 인당 평균 게재회수 및 표준편차
<b>4대 정기 학술지</b>		
관광학연구	219	0.93 (1.86 )
관광연구	72	0.31 (1.03 )
호텔경영학연구	79	0.34 (0.93 )
관광레저연구	63	0.27 (0.97 )
기타 학술지	1499	6.38 ( 7.5 )
국제 학술지	129	0.55 (1.43 )
프로씨딩	272	1.16 (2.37 )
저서 및 역서	438	1.86 (3.21 )

주: 유효 집단수(N)은 235명임.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편차  $\sigma$  임.

너무 커서 평균을 가지고 모집단 전체의 특성을 살피는 데에는 무리가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 3. 교수 연구생산성의 결정요인

#### 1) 나이(재직연수)와 연구생산성의 관계

앞의 기술통계에서도 나타났듯이 우리나라 관광학계 교수의 평균연령은 46.9세, 재직연수는 평균 8.5년에 해당된다. 나이와 재직연수는 상관성이 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 $r=0.615$ ) 본고에서는 이들 중에서 주로 한가지 변수(재직연수)만을 검토해보기로 한다. 먼저 각종 연구생산성과의 상관계수를 구해보면 <표 5> 와 같다. 즉, 나이 혹은 재직연수와 각종 연구업적간의 상관성은 기타 학술지의 경우만  $-0.594$ 로서 재직기간이 높아감에 따라 게재빈도가 낮아지는 관계를 보일뿐 특이한 관계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다만 관광학연구지의 경우, 재직연수가 늘어갈 수록 투고율이 다소 낮아져가는 경향을 보여준다 ( $r=-0.317$ ).

종류별 생산량을 합제한 총생산량과 재직연수간의 상관관계를 구해본 것이 <표 6>이다. 재직기간 동안의 생산물과 재직연수와의 상관성은 정의 관계를 보이며 약 47-50 %의 상관성에 이른다. 재직기간이 늘어갈 수록 생산물의 총량은 누적되므로 당연히 정상관성을 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논자는 이 업적량을 다시 재직연수로除한 '재직 연간 평균생산성'을 구해보았는데, 그 결과가 <표 6>의 제2행이다.

<표 5> 나이·재직연수와 각종 연구생산성의 상관계수

	관광학연구	관광연구	호텔경영	관광레저	기타학술지	국제학술지	프로씨딩	저역서
나이	-0.047	-0.143	0.005	-0.019	-0.244	0.122	0.135	-0.155
재직연수	<b>-0.317</b>	-0.163	-0.122	-0.166	<b>-0.594</b>	0.010	-0.015	-0.296

<표 6> 재직연수와 연구논문 및 저서 생산성간의 상관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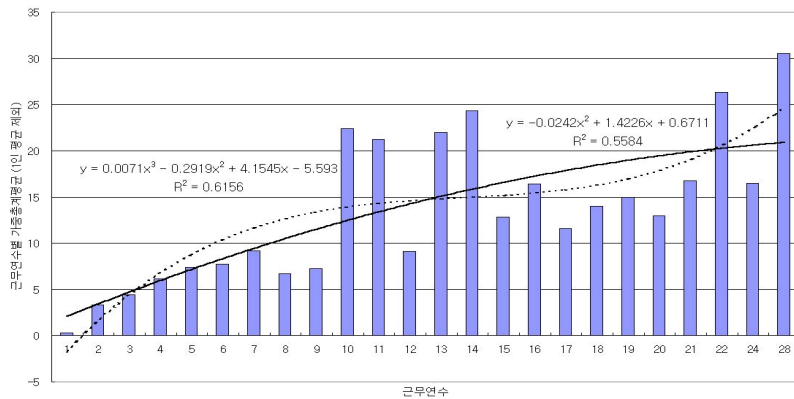
연구 생산성 구분	논문 단순 합계	논문가중 합계	논문/저서 단순 합계
재직기간 생산성 총계	0.503	0.467	0.500
인당 연간 생산성 총계	-0.172	-0.199	-0.160

주: 단순합계는 논문(proceedings 포함) 생산량을 가중치없이 합계한 수치이며, 논문가중합계는 등재학술지인 「관광학연구」와 국제학술지에만 일반학술지의 2배 가중치를 준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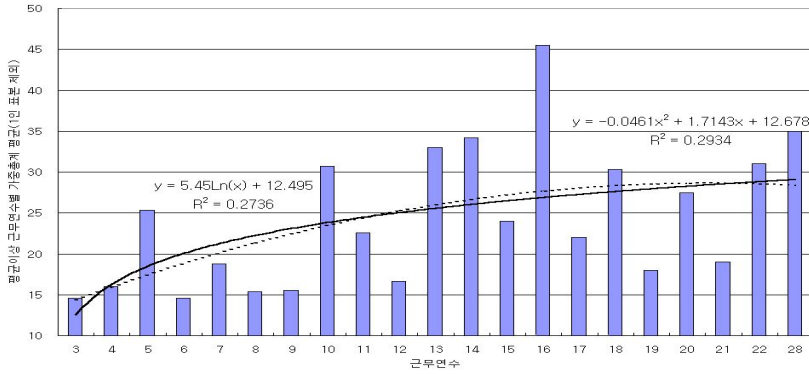
이를 보면, 상관성이 크게 높지는 않지만, 연간 생산성은 오히려 재직기간 증가에 따라 감소해가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論者は 나이(재직연수)의 증가에 따라 연구생산성은 ‘말 안정형’의 추세를 보인다는 Parson-Platt의 가설을 확인해보기 위해 연령별 연구생산성의 추세를 살펴보았다. 이것이 아래 [그림 2]이다. [그림 2]는 1인 표본을 제외하고 2인 이상의 표본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재직연수와 연구논문 가중총계의 평균치와의 관계를 살펴본 것이다. [그림 3]은 논문 생산성 평균치(인당 평균 12편)를 상회하는 업적에 대해서만 근무연수와 대비시켜 본 것이다. 이들 회귀선 추세치를 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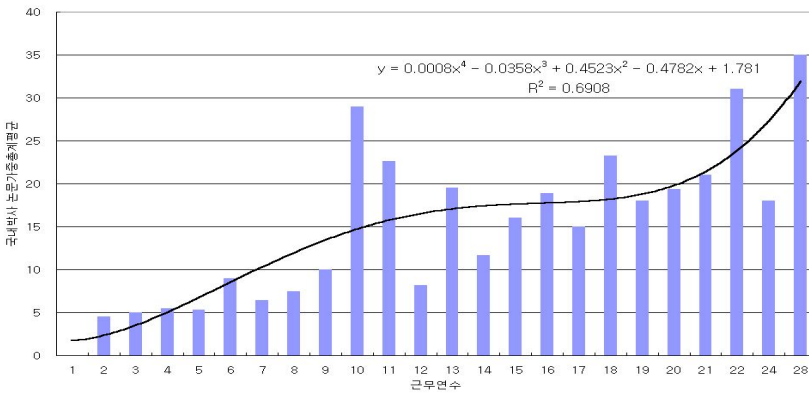
[그림2] 재직연수별 논문생산의 중총계 평균의 관계(1인 표본 제외)



(그림 3) 평균이상 생산성을 보인 교수들의 재직연수별 논문 기중평균 생산성 추이



(그림 4)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의 재직연수별 논문기중총계 평균생산성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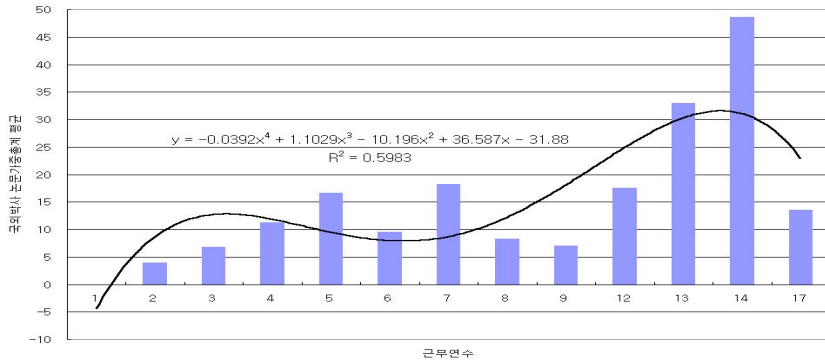


비록 설명력이 낮기는 하지만( $R^2=0.2736$ ), 추세선에서 볼 수 있듯이 근무연수에 따른 연구생산성은 '말 안정형'이라기보다는 증가율이 점차 제감하는 우상향의 곡선 형태를 띄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즉 퇴임기까지 쇠퇴기가 없이 생산성은 (비록 증가율은 떨어지고 있지만)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것으로 나타났다.

이 현상을 보다 면밀히 알아보기 위해 교수집단의 범위를 박사학위 취득자로 국한시키고 이를 국내 취득자와 해외취득자로 구분하여 위의 가설을 검토해 보았다. 이 관계 그림과 추세선을 나타낸 것이 [그림 4]와 [그림 5]이다. 이들 그림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2인 이상 표본사례만을 대상으로 하고 각 근무연수 집단의 논문

생산성(가중 생산성)의 평균치를 사용하여 추세분석을 해 보았다. 국내 학위자의 경우를 보면, 역시 위의 [그림 2]에서와 같이 생산성은 근무연수 증가에 따라 점진적 우상향 곡선을 취하고 있으며, 재직연수가 약 20년 정도를 상회하면서 오히려 연구업적은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곡선 적합도=69.1%). 반면, 해외 학위취득자의 경우 ‘말 안장형’에 가깝게 나타나고 있는데, 재직 9년경에 최저점에 도달했다가 재직 13-14년에 최고점에 달한 후 다시 급격히 하향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곡선 적합도=59.8%). 즉, 국내 학위자의 생산성은 시간이 갈수록 계속 증가하는 반면에 해외 학위자의 생산성은 말 안장형의 굴곡성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림 5) 해외 박사학위 취득자의 재직연수별 논문기중총계 평균생산성 추이



## 2) 직급과 연구생산성의 관계

이성호(1992:124)의 연구에 의하면, 교수들의 직급이 높을 수록 누적된 연구업적이 많으며 출판율도 높다고 한다. 그러나 연구업적을 단순 누적시킨다면, 직급이 높을수록 교수로서의 재직 연수도 대개 늘어나므로 연구업적 또한 많아짐이 당연하다. 본 연구에서도 교수인당 누적치(누적 평균치)로 계산했을 때는 전임강사에게서부터 교수로 직급이 높아 갈수록 연구생산성은 높아가고 있으며, 특히 기타학술지에서의 생산성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7과 그림 6 참조).

그러나 이들 각자의 생산성을 재직연수로 나눈 연평균으로 보았을 때는 전혀 다른 결과가 빚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관광학연구지와 호텔경영연구지의 경우, 부교수의 기여도가 가장 높으며 기타학술지와 지역서의 경우 조교수가 가장 많은 생산성을 보이고 있다. 반면, 프로씨딩과 국제 학술지는 조교수의 기여도가 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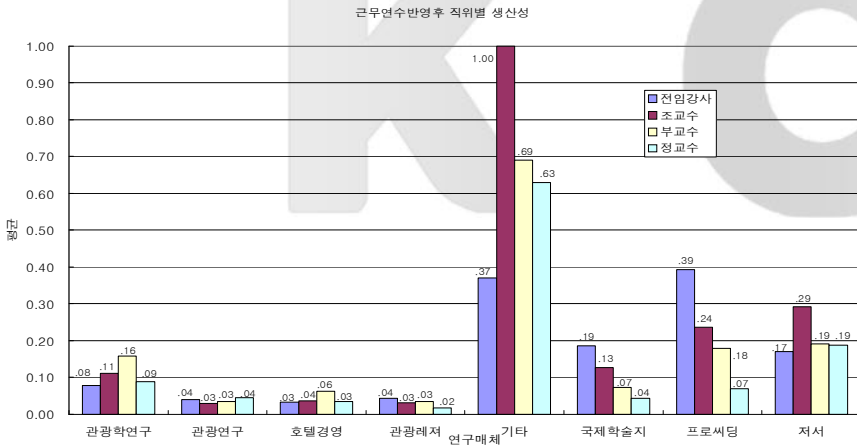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 생산성(논문 가중치 생산성)을 보면, 연평균으로 계산해 전임강사는 1.41편, 조교수 1.81편, 부교수 1.46편, 정교수 1.06편으로 조교수의 생산성 기여도가 가장 높은 반면(정교수의 1.7배), 정교수의 기여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분산분석을 해보아도 이들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F = 15.4, p = 0.000$ ). 正教授의 연구생산성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최하위를 나타내는 이유는 일단 정교수로 승진되면 더 이상 재임용 실적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므로 연구생산성을 높여야 할 外的 動機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닌가 사료된다.

<표 7> 직급과 연구매체별 연구생산성의 관계

직급	평균	관광학 연구	관광 연구	호텔경영 연구	관광레저 연구	기타 학술지	국제 학술지	프로 씨딩	저역서
전임강사	누적평균	0.17	0.09	0.07	0.11	1.13	0.46	0.98	0.57
	연간평균	0.08	0.04	0.03	0.04	0.37	0.19	0.39	0.17
조교수	누적평균	0.65	0.15	0.24	0.22	5.69	0.57	1.15	1.68
	연간평균	0.11	0.03	0.04	0.03	1.00	0.13	0.24	0.29
부교수	누적평균	1.30	0.40	0.60	0.42	6.94	0.54	1.60	2.08
	연간평균	0.16	0.03	0.06	0.03	0.69	0.07	0.18	0.19
교수	누적평균	1.51	0.57	0.43	0.32	10.45	0.60	0.95	2.83
	연간평균	0.09	0.04	0.03	0.02	0.63	0.04	0.07	0.19

주: 모집단(이하 괄호안 숫자는 유효수)은 전임강사가 58(47), 조교수 84(74), 부교수 53(50), 정교수 70(65)임.

(그림 6) 재직연수 반영후의 직위별 연평균 생산성



<표 8> 최종학위별 연구매체별 연구생산성

최종 학위별	평균	관광학 연구	관광 연구	호텔경영 연구	관광대 저연구	기타 학술지	국제 학술지	프리 씨딩	지역서
박사학위 국내취득	누적평균	0.92	0.33	0.38	0.35	8.06	0.22	0.81	2.13
	연간평균	12.60	4.55	5.23	4.75	110.85	3.00	11.14	29.26
박사학위 해외취득	누적평균	1.18	0.35	0.31	0.19	4.14	1.35	2.14	1.71
	연간평균	13.16	3.87	3.41	2.17	46.13	15.02	23.84	19.04
석사학위 취득자	누적평균	0.20	0.00	0.15	0.00	2.85	0.05	0.15	0.65
	연간평균	0.45	0.00	0.34	0.00	6.48	0.11	0.34	1.48

주: 석사학위자 총수(괄호안 숫자는 유효수)는 21(20),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는 151(142), 해외 박사학위 취득자는 80(72)임.

3) 최종학위와 연구생산성의 관계

이성호(1992, 1995)등이 지적하지 않았지만 최종학위(박사학위) 여부 그리고 어떤 연구풍토에서 이를 취득했는가도 연구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된다.

국내의 박사학위자와 석사학위자를 연구매체별로 그 생산성을 分散分析으로 비교해보았을 때 이들 간에는 분명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F=6.3, P=0.001). 이들 간의 연구생산성을 비교해본 것이 <표 8>이다. 먼저, 누적 평균으로 보나 연간 평균으로 보나 최종학위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집단은 박사학위를 취득한 집단보다 연구생산성이 엄청나게 낮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박사학위 집단의 경우에는 논자가 제기한 가설과 다르게 해외에서 학위를 취득한 집단이 관광학 연구지(1.04배), 프리씨딩(2.1배), 특히 국제학술지에서 훨씬 더 높은 (5배) 생산성을 보인 반면, 3대 학술지 및 기타학술지 그리고 저·역서에서 압도적인 약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해외학위 취득자일 수록 심사학술지에 글을 실는 것을 더 선호하는 반면, 국내학위 취득자는 비심사지 이룰테면 교내 논문집(기타 학술지의 거의 2/3가 교내 논문집임)이나(2.4배) 익명심사와 관련이 없는 개인 지역서 지향적(1.5배)이라는 해석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 아울러 해외학위 취득자는 국내학위 취득자보다 국내외 학회 등에서의 발표활동이 국내학위 취득자에 비해 훨씬 더(2.1배)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4) 지역별 연구생산성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거주지 파악이 어려운 관계로 대학의 소재지를 조

사자 거주지의 대리변수(proxy variable)로 파악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대학 소재지를 市郡이 아니라 市道別로 파악하였기 때문에 이 광역지역을 교수집단의 거주지로 간주하기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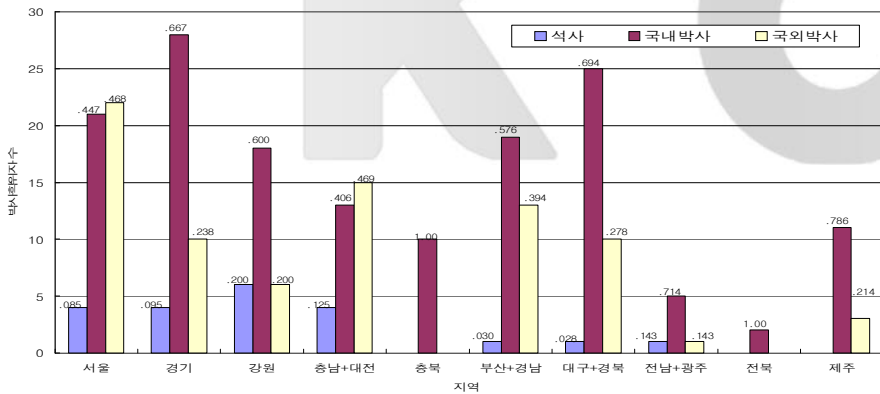
<표 9>는 거주지별 연구매체별 연구생산성을 나타내주고 있다. 해당란의 왼쪽 숫자는 연구실적물 수를, 괄호안의 숫자는 지역 교수 인당 평균생산성을 나타내 준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관광학연구지에는 전북, 서울 및 수도권 출신 학자의 기여도가 높고, 관광연구지는 대구/경북권, 관광레저연구지는 부산/경남권, 기타 학술지는 전북, 전남/광주 그리고 충북권, 국제 학술지는 수도권, 프

<표 9> 지역별 연구매체별 연구생산성

지역	교수수 (유효수)	관광학 연구	관광 연구	호텔경영 학연구	관광레저 연구	기타 학술지	국제 학술지	프로 씨딩	저서 역서
서울	50(41)	66(1.61)	9(0.22)	27(0.66)	0(0.00)	246(6.00)	29(0.71)	75(1.83)	68(1.66)
경기	44(42)	54(1.29)	6(0.14)	13(0.31)	1(0.02)	328(7.81)	32(0.76)	35(0.83)	141(3.36)
강원	32(27)	12(0.44)	2(0.07)	5(0.19)	0(0.00)	135(5.00)	6(0.22)	22(0.81)	27(1.00)
대전/충남	36(32)	12(0.38)	1(0.03)	3(0.09)	2(0.06)	146(4.56)	18(0.56)	25(0.78)	40(0.78)
충북	10(6)	8(1.33)	0(0.00)	7(1.17)	2(0.33)	70(11.67)	4(0.67)	6(1.00)	10(1.67)
대구/경북	37(35)	25(0.71)	47(1.34)	16(0.46)	15(0.43)	241(6.89)	23(0.66)	52(1.49)	59(1.69)
부산/경남	37(31)	17(0.55)	5(0.16)	3(0.10)	37(1.19)	134(4.32)	14(0.45)	37(1.19)	74(2.39)
전남/광주	9(7)	6(0.86)	2(0.29)	0(0.0)	0(0.0)	77(11.0)	3(0.43)	13(1.86)	6(0.86)
전북	4(2)	5(2.50)	0(0.00)	0(0.00)	0(0.00)	35(17.50)	0(0.00)	1(0.50)	8(4.00)
제주	16(12)	4(0.33)	0(0.00)	5(0.42)	6(0.50)	87(7.25)	0(0.00)	6(0.50)	5(0.42)
總計	275	219	72	79	63	1499	129	272	438
平均	(235)	0.87	0.28	0.31	0.25	5.92	0.51	1.08	1.73

주: 숫자는 연구실적물 수를, 괄호안 숫자는 지역교수 인당 평균생산성을 나타냄.

[그림 7] 국내외 박사학위 취득자의 지역별 분포



로씨딩은 서울과 전남/광주 그리고 저·역서는 전북, 경기도, 부산/경남 순으로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부 지역의 경우, 표본수가 적어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나(예: 전북, 전남/광주 및 충북) 학술지에 따라 다소 지역편향성을 띄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즉, 관광학 연구지와 호텔경영학 연구지는 비교적 전국성이 강한 반면, 관광연구지는 대구/경북권 교수에게, 관광레저 연구지는 부산/경남권 교수에게 집중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앞의 분석결과를 놓고 볼 때 이는 학위자의 지역별 분포와도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그림 7]이 최종학위자의 지역별 분포를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 본 것이다.

예상과 어긋나지 않게 서울권, 충남/대전권에 해외 박사학위 취득자가 집중되어 있으며, 경기도, 강원도, 충북, 부산/경남, 대구/경북, 전남북 및 제주도 등 거의 대부분 지역이 국내에서 학위를 취득한 계층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석사학위 취득자는 대부분 강원도, 충남/대전, 경기, 서울 순으로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권이 국제학술지나 프로씨딩 생산성이 높은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IV. 요약, 논의 및 시사

이상에서 4년제 대학 관광관련전공 교수는 어떤 특성을 지닌 집단인가를 교수의 연구생산성이라는 측면에서 파악해 보았다. 교수의 연구생산성을 규정짓는 요인은 소속 대학이나 학과의 학문적 분위기와 지도교수의 성향, 연구동기, 직급, 연령, 전공 분야, 대학원과정 개설 여부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자료 제약조건상 다른 변수는 일정하다고 놓고, 재직기간, 직급, 학위취득 상황, 거주지역 만을 중심으로 교수 연구생산성 결정인자들을 파악해 보았다.

그 결과, 재직연수에 따른 연구생산성은 '말 안장형'이라기 보다는 증가율이 점진적으로 체감하는 우상향의 곡선형태, 즉 퇴임기까지 생산성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를 국내외 박사학위취득자끼리 비교해보았을 때, 국내 학위자의 생산성은 재직연수 증가에 따라 점진적 우상향 곡선을 취하고 있으며, 재직연수가 약 20년 정도를 상회하면서 오히려 연구업적은 더욱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해외 학위자의 생산성은 재직기간 13-14년을 정점으로 '말 안장형'의 굴곡 현상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

다.

한편, 직급별로 보면, 연구생산성(가중 논문생산성)이 전임강사 1.41편, 조교수 1.81편, 부교수 1.46편, 정교수 1.06편으로 조교수의 생산성 기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박사학위 집단의 경우에는 논자가 제기한 가설과 어긋나게 해외에서 학위를 취득한 집단이 관광학연구지와 프로씨딩 그리고 특히 국제학술지에서 훨씬 더 높은 생산성을 보인 반면, 3대 학술지 및 기타학술지 그리고, 저역서에서 압도적인 열세를 보였고 반대로, 국내학위 취득자는 대개 익명심사를 하지 않는 교내 논문집이나 개인 저역서에서 두드러진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앞으로 대학마다 교수 논문의 질을 점차 강조해가는 추세이므로 학위별 차이 현상은 점차 해소되리라 여겨진다. 아울러 서울을 필두로 일부지역에만 해외박사가 몰려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게재학술지의 지역편향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共著者を 파악할 수 없어 이들의 연구생산성을 단일 저자인양 계산했다는 점, 동일 학회지 투고논문 수준의 질적 차이 문제(특히, 한국관광학회지의 익명심사제 이전과 이후 논문의 동일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학술진흥재단에 정보를 등록하지 않았거나 개인 홈페이지 정보 자체가 없는 '限界集團'을 본 분석에서 배제했다는 점은 교수의 전체 평균생산성을 과대평가시켰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본 연구의 사례조사를 통해볼 때, 한계연구집단의 생산성이 정보제공집단의 그것보다 심히 낮았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는 대학원 과정 설치 유무 등 대학마다 지닌 고유한 연구풍토에 대한 검토를 捨象하므로써 우리나라 대학의 실상을 的確히 반영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런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위의 여러 발견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아직까지 관광분야 교수집단은 연구의 질보다는 양적 요건을 충족시키는데 급급하며, 내적 연구 동기보다는 승진·재임용 등의 외적(제도적) 동기에 좌우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특히 이런 현상은 국내학위 취득자의 경우에 심하게 나타나고 고령자일 수록(재직연수가 많을수록) 더 심해지고 있는 듯하다. 학문의 질적 老現象은 해외학위 취득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재직기간 14년 정도 이후부터 연구생산성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이 단적으로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최근 教育人的資源部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대학원생수는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2002년 현재, 262,867명이 在籍), 일반대학원 전임교수를 한 명도 뽑지 않았거나 심지어 대학원 전용시설조차 전혀 확보하지 않고 있는 대학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교수신문, 2002: 1면). '세계적 수준의 대학원 육성'이라는 거창한 표어와는 달리 우리의 실제 교육·연구 여건은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것이다. 교수집단 및 관계기관의 대대적인 각성과 개혁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관광이라는 학문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학문을 발전시키는 일은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장기과제이다. 비심사 논문집이나 검증되지 않은 저서 출판의 선호 등 형식적 요건 충족이나 자의적 목표 추구에만 급급해서는 학문의 발전은 요원하다. 앞으로 대학당국이나 관련기관들이 질적 연구생산성을 고취시키는 제도의 조기도입을 서둘러야 하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소속 교수집단 각자가 대학교수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스스로 인식하고 순수 연구의욕을 발현해 연구생산물의 질 향상, 나아가 관광학의 이론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김민주(2000). 우리나라 관광경영학 연구의 추세와 방향모색. 『관광학연구의 현황과 과제』 (김사현외 8인 공저) 백산출판사.
- 김사현(1999). 우리나라 관광학술지의 연구논문 성향 분석. 『관광학연구』 23(1): 189-211
- 김사현(2002). 『관광학연구방법강론』. (개정판) 백산출판사.
- 송혁순(2001). 대학교수의 연구 생산성.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안재욱(1997). 『한국의 사립대학교』 자유기업센터
- 엄정인(2001). 교수 평가제도의 실태와 개선방향. 『대학교육』 대학교육협의회, 제 114호.
- 이성호(1992). 『한국의 대학교수』 학지사
- 이성호(1995). 『세계의 대학교수』 문이당.
- 장정현(1996). 『한국의 대학교수 시장』. 내일올여는책 출판사.
- 정진환(2001). 교수 임용제도의 실태와 개선방향 『대학교육』 대학교육협의회, 제 114호.
- 조명환(2001). 우리나라 관광학 교과과정 체계화 방안. 『학술연구 발표논문집』 제 48차 한국관광학회 학술발표대회. 한양대학교. 2. 17
- 교수신문. 2002년 9월 30일자. 1면
- 有本章·江原武一(2000). 『대학교수의 자화상: 세계 대학교수 국제 비교 연구』 (김정휘·이주한 역). 교육과학사.
- Bayer, A. E. & Dutton, J.(1977). Career Age and Research Professional Activities of Academic Scientists. *Journal of Higher Education*. 48(May/June). 259-282.

Leiper, N.(2000). An emerging discipline. *Annals of Tourism Research*. 27(3): 805-809.  
Ritchie, J. R. B. & Goeldner, C. R.(1994). Introduction. In J. R. Brent Ritchie and Charles  
R. Goeldner(eds.). *Travel,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A Handbook for  
Managers and Researchers*. John Wiley & Sons, Inc. XIII-XVI  
Tribe, J.(1997). The indiscipline of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 24(3): 638-657.  
Tribe, J.(2000). Indisciplined and unsubstantiated. *Annals of Tourism Research*. 27(3):  
809-813.  
<http://www.krf.or.kr/newkrf/researcher>

2002년 8월 10일 원고 접수 · 2002년 10월 5일 최종 수정본 접수  
3인 익명심사 특

K C I